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 도 자 료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배 포 일	2023. 07. 21.(금)	매 수	총 1매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 사업개발부	담당자	부장 정현석(02-3415-6930)
			주임 전경민(02-3415-6936)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실천 위해 다회용기 순환 자활사업 네트워크 발족

- 다회용기 순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 조직간 네트워크 추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이하 '개발원')은 지난 7월 17일~18일 1박 2일간 충주 소재 한국자활연수원에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회장 이재희)와 공동주최로 '자원순환 자활사업 네트워크 및 교육'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다회용기 순환사업을 추진 중인 자활사업 관련기관 간 단단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다회용기 순환 자활사업을 자활특화사업으로 성장시키고, 탄소중립 정부 정책을 자활조직이 함께 펼쳐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개발원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1개 광역자활센터, 56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여하였다.

'다회용기 순환사업'이란 1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 영화관, 카페, 행사장,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지역 내 1회용품 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48개 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세척장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원 관계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자활센터 세척장에서 다회용 컵, 장례식장 그릇 등의 다회용기 공급 및 세척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1회용품 사용을 절감하는 환경적 성과를 창출해 냈으며, 이를 통해 754명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원 박향희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자활 다회용기 순환사업은 타 자활근로사업단 연 평균 참여자 10.5명보다 5명 더 많은 15.5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주요 시설인프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지원조직으로서 자활 다회용기 순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